

한국 공공도서관의 정보제공기능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박 인 응* · 양 재 한**

〈목 차〉

- | | |
|----------------------------|------------------------------|
| I. 글을 시작하면서 | 2. 목적 재해석 |
| II. 한국 공공도서관 성립의
사상적 배경 | IV. 공공도서관을 통한 정보
주권 확립 방안 |
| III. 공공도서관의 목적 변천
과정 | V. 글을 마치면서 |
| 1. 목적 변천과정 | Abstract |

I. 글을 시작하면서

1996년 한해는 공공도서관 간판 내리기를 획책하는 일단의 무리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도서관인들의 숨막히는 힘겨루기가 계속된 한해였다. 이러한 대치상황은 도서관계와 학계에 근무하는 모두를 긴장 속으로 내 몰았다.

공공도서관 간판 내리기는 1995년 말 전라남도과 강원도를 시발로 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필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지난해 2월 “96 도서관 운영진단보고서” 라는 문건이 나와 현장사서들과 극한 대립이 있었다. 현장사서들은 동년 4월 “96 도서관 운영진단 보고서 및 도서관 운영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 이란 문건으로 그 부당성을 주장하였다.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창원전문대학 문헌정보과 부교수

동년 4월 22일에는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공동작업실에서 ‘존경하는 정순택 교육감님께’ 라는 글을 통하여 그 부당성을 교육청의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에게 탄원하였다. 한편 신문지상을 통하여 김정근 교수는 ‘도서관간판 내릴 셈인가’(국제신문, 5월 11일)라는 기고문을 발표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성대 부산시 교육청 행정담당관은 김정근 교수 기고문에 대한 반론의 글을 기고하여 신문지상을 통한 공방이 있었다. (국제신문, 5월 20일) 이러한 급박한 상황은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났다.¹⁾

이에 지난해 7월 국내 도서관 관련 전 단체가 참여한 ‘공공도서관수호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정보문화 역행하는 공공도서관 말살책략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서명운동과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필자의 거주지와 비교적 인접한 대구, 부산, 경남지역에서는 지난해 10월에 세번의 도서관대회가 열렸다. 하나는 “96 공공도서관 경남지역 세미나” 이고, 다른 것은 대구·경북지역의 “96년 한도협 대구·경북지구협의회 세미나”와 전국도서관인의 모임인 ‘전국도서관대회’가 열렸다. 이들 대회에서 선정된 주제는 경남지역은 ‘정보사회와 공공도서관’, 대구·경북지역은 ‘공공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 전국도서관대회는 ‘정보환경의 변화와 도서관 문화’였다.

전국도서관대회와 공공도서관 경남지역세미나에서는 미래도서관의 모습에 대하여, 대구·경북지역세미나에서는 공공도서관 현장의 문제를 고민한 모임이었다. 급기야는 경남지역에서 발표된 내용 중에는 공공도서관의 모습을 컴퓨터와 통신망과 사서만으로 구성된 도서관을 예측하면서 현재의 건물과 장

1) 공공도서관 명칭 변경과 관련된 도서관과 지역은 다음과 같다.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나주, 목포 도서관을 대상으로 사회교육원 설치 움직임(95. 10). 강원도 교육청에서 춘천중앙도서관을 대상으로 교육문화회관 설립계획(95). 전라남도 완도 군립공공도서관을 완도교육문화회관으로 개칭하려는 움직임(95.10). 광주시의 중앙, 금호도서관을 대상으로 교육문화회관 설치움직임(95.11). 서귀포시립도서관의 서귀포시 종합문예 진흥사업소로 명칭변경(96.2). 광주시 금호도서관이 금호교육문화회관으로 명칭변경(96.4). 전라북도에서는 대야공공도서관, 남원공공도서관, 원평공공도서관을 학교도서관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97.1)과 김제공공도서관을 폐관(97.1)하려는 움직임 등

서 중심으로 구성된 도서관은 사라질 것이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합은 미래도서관과 정보화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발생된 것으로 생각된다. 학계에서 미래도서관을 바라보는 관점은 대체로 2가지 견해로 글들이 발표되고 있다. 하나는 디지털도서관이 전통적 도서관을 대체할 미래도서관의 모형이라는 견해와 다른 하나는 디지털도서관은 전통적 도서관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도서관을 보완내지 보강한다는 견해이다.

전자의 주장은 전자공학자들의 주장으로, 미래사회에는 건물로서의 도서관은 사라질 것이며, 종이매체는 전자매체로 대체될 것이며, 이용자는 직접 접근에 의해 스스로 정보를 이용할 것이므로 사서가 필요없을 것이라는 견해이다. 후자의 견해는 주로 문헌정보학자들의 견해로, 미래사회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건물로서의 도서관은 존재할 것이며, 인쇄매체와 전자매체는 공존할 것이며, 이용자의 요구증대로 사서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정보화사회에서의 정보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미래사회의 발전은 정보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믿는 견해와 또 하나의 견해는 사회발전을 하는데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하려는 자세에 의문을 품고 인간중심적인 기술을 추구하는 자세이다. 이들은 기술은 인간의 삶을 도와주는 하나의 보조적 도구라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전자의 견해를 따르는 자는 기계와 기술만 있는 도서관을 말하며, 후자의 견해를 따르는 자는 영혼의 쉼터로서의 도서관을 말하고 있다.²⁾

미래도서관의 모형과 도서관에서의 정보기술에 대하여 전자의 견해를 취하고 있는 자는 문헌정보학자들 중에도 있다. 이는 도서관이 수행하는 여러 기능 중에서 정보제공기능만을 확대해석함으로써 발생한 현상이라 생각된다.

2) 미래도서관의 모형과 정보화사회에서의 정보기술에 대하여는 필자의 다음 글의 제2장 디지털도서관과 미래도서관의 모형 문제, 제3장 도서관에서의 정보기술을 참조하면 된다. 양재환, “한국 미래도서관의 모형” 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제52권 1호(1997. 봄호), pp. 45-7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땅의 공공도서관이 사회적 장치로서 건전한 생존을 위하여 한국에서의 근대적 공공도서관 형성의 바탕이 된 사상적인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고, 근대적 공공도서관이 사회적 장치로서 자리 매김 하기까지의 목적 변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 땅에 현존하는 공공도서관의 목적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재해석해 내고, 미래 공공도서관의 모형으로 책이 없는 도서관(bookless library), 종이 없는 도서관(paperless library)을 애기함은 공공도서관의 기능 중에서 정보제공의 기능을 확대 해석한 측면이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또한 초고속정보도로 시대에 정보선진국에 정보종속을 당하지 않는 길은 공공도서관을 통한 정보주권 확립만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자 한다.

II. 한국 공공도서관 성립의 사상적 배경

우리나라는 과거 집현전, 홍문관, 규장각 등과 같은 도서관들이 존재했었다. 이들 도서관은 특정계층의 사람만을 이용대상으로 한 도서관이었다. 오늘날과 같이 모든 주민에게 공개되는 근대도서관사상은 개화기에 나타나게 된다.

오늘날과 같은 도서관이 이 땅에 태어나는 과정과 그 사상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대원군의 쇄국정책이 계속되는 즈음 고종13년(1876년) 강화도에서 일본과 ‘강화수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본격적인 개화의 불결이 이 땅에 밀려오기 시작한다. ‘강화수호조약’ 후에는 수신사와 신사유람단이 일본에 파견되어 신문화를 접하게 된다. 이때 제3차 신사유람단원의 한사람인 유길준이 일본에 남아 ‘경응의숙’에 유학을 하게 되는데, 당시 유길준은 우리나라 최초의 관비유학생인 동시에 일본이 받아들인 최초의 한국 유학생이었다.³⁾ 일본 유학생할

3) 박상균, 세계도서관사상사, (서울 : 민족문화사, 1994), pp. 244-245.

1년여 만인 고종19년(1882년)에 임오군란이 일어나게 된다. 이 일로 일본에 사죄차 온 민영익을 따라 귀국한 후, 1883년 ‘한미수호조약’ 체결로 다시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에 유학한 국비 유학생이 된다. 그러나 고국의 갑신정변(1884년) 소식을 듣고 이듬해 귀국하였으나 귀국하자마자 개화파 혐의로 ‘백록동’에 유배 당하게 된다. 이때 유배기간 동안 저술한 ‘서유견문’에 외국의 근대도서관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서적고’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당시 우매하기 짝이 없는 일반 백성을 계몽하기 위한 문맹퇴치기관으로서의 도서관을 말하고 있다.⁴⁾

당시 개화사상가들은 조선사회가 일본 및 구미열강의 제국주의적 침략 앞에 놓이게 되자 구국의 길은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게 된다. 이러한 개화사상과 교육구국운동은 각종 외국어 학교의 설립, 한성순보와 같은 근대적 신문의 발행, 우정사업의 전개, 근대적인 기업체의 창설등 근대지향운동이 사회의 여러면에서 다양하게 추진된다. 이와 함께 새로운 사상과 기술은 서적을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서적을 보관하는 시설인 ‘도서관’ 설립을 통하여 민족의 주권 회복이 가능하다고 믿게 된다.⁵⁾

이때 나타난 도서관이 서울에 ‘대한도서관’과 평양에 ‘대동서관’이다. 이들 도서관은 일본과 구미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아들일 수 있었던 서울과 평양의 도심지를 중심으로 하여 민족계도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설립하였으나 한일합방으로 인해 그 결실을 보지 못하고 말았다.

일제시대의 도서관은 일제식민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되었다. 일제는 식민지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인의 구국교육 탈살과 교육기관을 통한 일본어 보급, 그리고 일본문화를 주입시켜 조선인을 황민화하는데 그들의 교육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정책이 공공도서관 분야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조선인 교회사 설로서 ‘도서관’을 설립하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의 선각자들은 애

4) 위의 책, p. 246.

5) 오한석, “한국 근대도서관 설립운동의 사적고찰 : 개화기 일제치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1987, p. 43.

국제몽 운동의 차원에서 도서관 설립운동을 하게 된다. 1919년 3.1운동 이후 조선인의 항일에 대한 최유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일제의 문화정책기간동안 순수민간주도의 교육시설이 설립되는데, 이때 학교교육 시설보다는 시설적인 제약요소가 비교적 적은 공공도서관 설립운동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일제 기간동안 설립된 총공공도서관수는 235개로, 일본인이 교화시설로 설립한 도서관이 130개, 우리나라 선각자들이 애국계몽시설로 설립한 도서관이 104개나 되었다고 하니 당시의 애국지사들이 도서관설립에 얼마나 열심을 보였는지 알 수 있다.⁶⁾

일제는 그들의 지배 이데올로기 주입을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게 되지만 대다수의 조선인에게는 학교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교육활동을 통한 방법을 채택하게 된다. 따라서 일제는 조선인이 설립한 도서관을 탄압하였으며, 그들이 설립한 도서관을 지배 이데올로기 주입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당시의 도서관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신장하는 사회교육기관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일제의 지배 이데올로기 보급을 위한 사회교화기관으로 전락하게 되었다.⁷⁾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직후의 공공도서관은 일 제때의 시설과 장서를 그대로 인수하여 명칭만 바꾸어 놓은 상태였으며,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에도 공공도서관제는 6.25동란으로 오랫동안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⁸⁾

5.16혁명후 도서관법이 제정되지만 경제제일주의 정책으로 인해 문화영역에는 정체상태가 계속되었다. 유신정부의 출현으로 급기야는 국민의 알권리가 철저히 봉쇄 당하게 되고 공공도서관은 공부방으로 방치된 채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⁹⁾ 문민정부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공공도서관

6) 김남석, 일제하 공공도서관의 사회교육활동, (대구:계명대학출판부, 1991), pp. 227-231.

7) 위의 책, p. 230.

8) 김포옥, "광복이후 한국공공도서관사 연구: 일제하 공공도서관체도의 영향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0. p. 126.

9) 강대훈, 한국도서관운동론, (광주: 도서출판 광주, 1990), pp. 31-32.

은 외형적으로 다소 변화하긴 했으나 공부방의 기능에 머물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과거 개화기의 애국계몽운동을 위한 시설로서의 도서관사상과 일제 때의 지배 이데올로기 정당화를 위한 사회교화시설로서의 도서관 사상은 그 당시 공공도서관의 필요성을 정당화 시켜주는 사상적 배경이었다. 오늘날 사회적 장치로서의 공공도서관의 필요성을 정당화 시켜주는 사상적 배경은 무엇일까. 그것은 공공도서관의 목적변천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Ⅲ. 공공도서관의 목적 변천 과정

1. 목적 변천과정

오늘날 이 땅의 공공도서관들은 지역사회의 지지를 잃었거나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문화부 산하 기관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에서 간행한 ‘문화향수 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이 조사에서는 독서를 위하여 책을 구하는 원천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서점이 54.1%, 공공도서관이 4.8%, 이동도서관이 2.0%, 타인 14.3%로 나타났으며, 거의 읽지 않음 16.8%로 조사되었다.¹⁰⁾ 이 통계 수치를 보고 공공도서관이 우리 삶의 일부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도서관은 사회적 장치이다. 사회의 효용성을 잃은 사회적 장치는 그 기능을 회복하는 길과 사라지는 길밖에 없다. 우리 주변의 공공도서관이 계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은 사회적 장치로서의 자리 매김을 못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서구에서 이식되어 온 공공도서관이 이 땅에 자리 매김을 못하고 있는 요인은 무엇일까. 이는 그 동안 수행해 온 공공도서관의 역할들이

10) 문화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문화향수 실태조사, 1991. 6, pp. 75-76.

지역사회의 요구를 바탕으로 하여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회적 장치로 출발한 공공도서관의 목적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목적이 변천되어야 한다. 오늘날 이 땅에서 공공도서관의 효용성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의 실정에 맞는 공공도서관의 목적을 재해석해 내어야 한다.

최성진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자리 매김을 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를 공공도서관의 목적 설정에 미국용 기성품을 한국에 이식한데도 원인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피비디 사범대학 교육사절단’이 내한하여 도서관을 포함한 교육 전반의 재건사업 주도권을 장악하게 됨으로써 불운하게도 호기는 일실 되었다. 다만 그들이 공공도서관 목적설정정에 관한 한 ‘미국용’ 기성품을 한국에 이식한, 또는 적어도 우리나라 도서관인들이 그러한 과오를 저지를 계기나 분위기 조성을 간접적으로 도왔다는 사실이 불행한 일이었다는 것이다. 재건이든 창건이든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일의 목적설정이 우선되고 가장 중요시되어야 한다. 그것이 사회기관인 경우 그 사회의 전통적 가치와 방식, 시대적 필요와 그 우선순위 등에 기초하여 목적이 설정됨이 원칙이다. 이러한 일은 정리기술이나 도서관관리원칙 등과는 달라 잠시 체류하다가 떠날 외국인인 수행하기엔 무리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이것은 가설이지만 그러한 이유로 해서 이 미국인들은 한국 고유의 공공도서관 목적설정 의 방향모색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미국공공도서관의 목적을 일반적 목적처럼 말했고, 또 후에 도서관법 제정에 참여한 사람들을 포함해 그들에게서 배운 학생들은 그것이 한국 공공도서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목적으로 받아 들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¹¹⁾

한국실정에 맞는 공공도서관의 목적을 재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입해서 사용해 온 미국에서의 공공도서관 목적의 변천과정을 알아야 한다. 이를 살펴보자.

공공도서관의 목적형성에 최초로 기여한 사람은 Ticknor로, 19세기 당시 미국사회는 막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산업화정책으로 인해 교육수준이 낮

11) 최성진, “도서관법 중 공공도서관의 목적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비블리아, 제2집 (1974), pp. 136-137.

은 많은 이민을 미국으로 불러들였다. 이들에 대한 ‘미국화’는 시급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Ticknor는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공공교육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모든 장애물을 근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패가 되며, 신생 공화국이 평등과 자유를 유지하고 건전하게 발전하는데 필수조건이라 믿었다. Ticknor는 공공도서관이야말로 당시의 무료초등교육제도를 완성하는 시설로서, 민중의 자립적 민주정치사상을 형성하는 최고의 수단으로 보았다.¹²⁾ 당시 Ticknor가 공공도서관을 ‘대중교육’을 위한 시설로 바라본 이유는 첫째, 사람은 교육을 통해 누구나 완전해질 수 있으며, 둘째, 그 최적의 수단은 책이며, 셋째, 책은 비싸서 보통사람이 살 수 없다는 가정 하에서 나온 논리이다.^{13) 14)}

‘교육’ 다음으로 큰 비중을 둔 것은 ‘레크레이션’의 제공이다. 교육수준이 낮은 대중의 자기교육을 위해 ‘대중서’의 가치를 강력히 주장한 Ticknor의 생각은 후일 공공도서관에 ‘레크레이션 도서’를 갖추는 이념으로 발전하게 된다. 당시 공공도서관에 레크레이션 도서를 비치하는 일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넓은 이용자층의 흥미와 요구에 맞게끔 도서관의 기준을 낮춤으로서 도서관운영비를 세금으로 부담하는 많은 주민에게 매력을 주자는 현실적 필요성이 있었고, 둘째는 일단 레크레이션 도서(소설류 등)에 끌리어 도서관에 들어 온 대중의 독서취미와 습관은 향상되기 마련이며, 마침내 도서관이 원하는 수준 높은 도서를 읽힐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셋째는 내용상 이로울 것이 없는 레크레이션 도서라도 해만 없다면 일과 후에 정신적 휴식을 제공하는 데는 ‘진한 차 한잔’ 보다도 나올 수 있으며, 이런류의 책을 읽는 편이 다른 곳에서 부도덕한 행위로 여가를 소비하는 것보다는 유익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12) 이용남, “미국 공공도서관 목적 변천 추세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한성대학교), 제2집(1984), p. 141.

13) 오늘날은 책 1권 가격이 고작 30분-1시간 정도의 노임에 불과하지만 당시는 하루 노임에 해당했다고 한다.

14) 최성진, 앞의 글, p. 141.

그 이후 학교교육의 일반화와 매스 미디어의 급속한 발달로 1930-40년대에 이르러 미국공공도서관의 목적을 재정립하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이때 산업화의 영향으로 '정보제공'이 도서관의 주요한 목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ALA에서는 'Post-War Standards for Public Libraries'를 만들어 시대에 알맞게 종합하고 체계화한 공공도서관의 목적을 1943년에 마련하였다. 이 기준에서는 공공도서관의 목적으로 교육, 정보, 미적이해, 조사연구, 레크레이션 등 5개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시대변천에 따라 '정보봉사'가 강조되고 '레크레이션' 봉사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ALA의 Public Library Association에서는 1979년에 사회변화에 적응한 공공도서관 목적에 대한 성명서를 만들게 된다. 그 성명서에서는 첫째, 인간 경험의 모든 기록과 개인을 중개시키는 '비전통적 교육기관', 둘째, 창조성, 문학과 예술의 즐거움 및 미국의 다원적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는 '문화기관', 셋째, 개인을 지역사회에 연결시켜주고, 기록되어 있는 다양한 지식을 지혜의 실마리로 연결시켜 주는 '정보기관', 넷째, 장애자와 탈선자들의 잠재능력을 도와주는 '갱생기관'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을 이야기 하면서, 그 목적을 재정립하고 있다.¹⁵⁾

정보화사회의 도래와 인간 삶의 질에 관한 문제가 주요한 관심사로 떠오른 1970년대 이후는 '정보'와 '문화', '장애자 봉사'가 공공도서관의 주요한 목적으로 변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1994년 제정된 우리나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는 공공도서관이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즉, 오늘날 공공도서관의 주요한 목적은 시대의 발전에 따라 과거의 '교육과 레크레이션' 목적에서 '정보와 문화' 목적으로 그 강조점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 이용남, 앞의 글, p. 142-160.

2. 목적 재해석

오늘날 공공도서관의 목적이 ‘정보와 문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감에 따라 정보제공기능이 강조되어짐은 당연한 사실이다. 공공도서관의 정보기능 강조와 정보기술 발달은 정보제공기능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전통적 도서관의 고정된 장소에서 제공하던 정보봉사들이 장소의 개념이 사라진 접근에 의해 해결이 가능한 분야도 나타나고 있다. 즉, 기존 건물 중심의 도서관에서 컴퓨터와 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가 접근에 의해 자신의 정보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분야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21세기를 선점하기 위해 1993년 엘 고어 부통령이 초고속정보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이후 일본을 비롯하여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전세계 주요국가들이 앞다투어 새로운 정보화 전략을 수립하고 초고속정보도로 건설전쟁에 뛰어들고 있다. 이들 정보선진국들이 이 분야 선점을 위하여 선전포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정보선진국에 정보종속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정보화사회로 진입하게 될 우리가 정보선진국에 정보종속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제공’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도서관의 목적을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재해석해 낼 필요가 있다. 앞서서도 언급하였지만 최성진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자리 매김을 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공공도서관의 목적 설정에 미국용 기성품을 한국에 이식한데도 원인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의 독특한 전통과 문화에 바탕을 두고 거대한 실물장서를 바탕으로 하는 미국 공공도서관의 정보봉사 방법들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봉사현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 민족의 삶의 바탕에서 공공도서관의 목적을 재해석하여야 한다. 이 땅의 사회적 장치로 자리 매김을 못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을 우리 삶의 일부로 자리 매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면 공공도서관의 목표를 우리의 현실정에 맞도록 재해석해 보자.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성장의 논리가 사회분위기를 주도해 왔다. 이제는 삶의 질

을 토대로한 인간화의 논리로 대전환을 해야하는 시점에 와 있다. 특히 지방화 시대에는 지역사회가 유기적인 협조아래 한 덩어리가 되는 지역통합력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관건이다. 도서관은 삭막한 도시공간에 오아시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장소의 개념이 없는 기계적 장치로서의 도서관이보다 이웃이 있고 정답이 있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이어야 한다. 과거 우리 민족은 한동아리에서 촌락을 이루며 공동체 생활을 영위해 왔다. 전통사회에서 공동체는 생산과 생활이 합쳐져 있었다. 이들은 생산과 생활의 기초단위로 두레, 향약, 계라는 아름다운 전통을 갖고 있었다. 점차 이 땅에 산업화의 물결이 밀려오면서 생산현장과 생활현장이 분리되고 이농현상과 함께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이 일어났다. 인구의 도시집중은 각종 병리현상과 함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내었다. 도시에 이합집산된 무리들은 새로운 정착지에 뿌리를 내렸지만 우리 전통의 삶의 모습은 사라져 버렸다. 과거 전통사회에서 공동체로 묶어 주었던 두레, 향약, 계 등의 유산을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해 낼 수는 없을까. 개인의 자유, 삶의 질, 삶의 안정을 풀어 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기초인 지역공동체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¹⁶⁾ 지역주민들을 삶의 공동체로 엮어나갈 시설이 무엇일까. 바로 도서관이다. 예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도서관은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평생교육의 장, 건강한 지역문화를 일궈 가는 문화·예술공간으로서 역할을 하는 곳이 공공도서관이다. 이 땅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들에게 삶의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사회적 장치에서 이 땅의 공공도서관의 주요한 목적으로 재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주요한 목적중의 하나인 정보제공기능도 지역주민의 삶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초고속정보도로가 완성되어 정보선진국에서 만든 상업화한 정보가 이 땅을 강타할 때 정보종속을 당하지 않고 우리 나만의 정보주권을 확립하여야 한다. 정보주권

16) 양재한, "창원지역 공공 및 마을도서관 이용자 확보 방안", 도서관학논집(한국도서관·정보학회), 제23집 (1995. 겨울호), pp. 236-237.

확립의 문제는 어느 사회적 장치가 담당하여야 할까. 정보제공을 하는 신문·방송기관·출판기관, 다른 정보유통기관에서 이 일을 담당하여야 할까. 지역주민들의 삶의 '지역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는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이 일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IV. 공공도서관을 통한 정보주권 확립 방안

1963년에 제정된 우리나라 '도서관법'에는 공공도서관의 목적으로 '공중의 교양과 조사, 연구, 레크레이션 등 그 이용에 공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당시 우리나라 도서관법의 목적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 제정되었다.¹⁷⁾

당시 도서관법에 명시된 목적은 시대발전에 따라 불합리한 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지적으로는 공중에게 교양서를 읽혀 지역사회의 교양수준을 높이려는 이상이 공공도서관의 주목적이 될 수 없으며, 레크레이션 자료의 제공은 지역사회에 비추어 무의미한 일이며, 점증하는 정보화 시대의 수요에 맞도록 참고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사회 각부분 전문가를 위한 연구활동 지원의 체계는 축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¹⁸⁾

당시 우리나라 도서관계의 상황은 1957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처음으로 참고실을 설치한 후, 어떤 일을 하다가 모르는 일이 생겨날 때 그 해답을 제공해 주는 '정보제공'의¹⁹⁾ 개념으로서의 참고실이 1960년대 이후 점차 확산되었다.²⁰⁾

이러한 시대적 상황변화로 인하여 1987년 개정된 도서관법에서는 그 일부

17) 최성진, 앞의 글, pp. 136-140.

18) 위의 글, p. 165.

19) 1963년 제정된 도서관법에서는 공공도서관의 목적으로 '정보'라는 용어 대신에 '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0) 최성진, 앞의 글, pp. 157-158.

가 반영되어 ‘정보이용, 교양, 조사, 연구 및 교육, 문화활동’을 증진하도록 그 목적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 법에서 열거된 목적 항목 중에는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지적되었다. 정보와 조사는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으며, 교육의 의미에는 교양과 연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²¹⁾ 이에 따라 1991년 새로이 제정된 ‘도서관진흥법’과 1994년 다시 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는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함’을 공공도서관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정보이용을 공공도서관의 주요한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계는 1960년대에 참고실 설치를 통하여 참고자료를 통한 정보제공 기능이 점차 확산되던 중 1970-80년대 이후 컴퓨터가 공공도서관에 도입되어 정보제공의 보조도구로 활용하게 된다. 그 이후 기록매체로 전통적 매체인 종이 이외의 매체들이 개발되어 사용됨에 따라 도서관은 다양한 매체를 보유하게 되었다. 급기야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전통적 기록매체인 종이의 소멸을 말할 정도로 정보 기술이 발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도서관의 대부분은 인쇄매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에 소속된 46개교의 자료 구성을 보면, 마이크로자료 53,000여점, 음반 2,600여점, 슬라이드 16,000여점, CD-ROM 611점을 소장하고 있는데 비해 장서는 1,080여만 권을 소장하고 있어 도서관에서 인쇄매체의 비중이 거의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²²⁾ 한편 현재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 자료 가운데 인쇄매체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인쇄매체는 그 나름의 한계도 있다. 인쇄매체 중심의 도서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도서를 보관하기 위한 서고공간을 계속적으로 증가시켜야 하는 것과, 정보의 최신성이 결여되는 점, 자료구입비의 계속적인 증가, 자료정리 비용의 증가, 자료보존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

21) 이용남, “공공도서관 목적의 구조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한국문헌정보학회), 제22집(1992.6), pp. 45-47.

22)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 국립대학도서관보, 제14집(1996), pp. 232-234.

되고 있다.²³⁾

공공도서관에서의 정보제공 기능에 대한 강화와 종이매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매체가 개발되어 사용함에 따라 컴퓨터와 통신이 결합된 디지털도서관이 전통적 도서관을 대체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공공도서관의 목적이 정보제공 외에도 시민 복지서비스적 차원의 공공도서관이 가진 사회 문화 기구라는 본질적인 성격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 시설로서의 기능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과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현단계를 제대로 보지 못함에서 나온 주장으로 생각되어진다. 미래에 장서와 건물로서의 공공도서관의 모습이 사라진 컴퓨터와 통신망이 결합된 공공도서관을 상상해 보라. 현재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로 흘러들어오는 영어로 된 미국의 정보와 문화의 유입을 생각해 보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상업화하고 있는 D/B산업 현장을 보라.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도서관 생성의 기본개념인 공비성, 공개성, 무료성의 원칙은 어떻게 계속 확보해 나갈 것인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평등한 정보이용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는 인간평등의 정신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해답은 공공도서관에서 찾아야 한다. 정보 선진국에 종속 당하지 않고 우리 나름의 정보주권 확립이 가능한 사회적 시설이 바로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이다.

아직은 국가간에 초고속정보도로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이미 국가간 디지털정보 이동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디지털정보 이동 추세는 하나의 방향으로만 흐르고 있다. 즉, 미국 등 정보선진국에서 정보 후진국으로 디지털 정보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80%는 영어로 된 정보이다.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가 출수 있는 정보는 무엇이 있는가. 현재는 우리 나름의 토착 디지털정보가 생성되어져 있지 않다. 우리는 정보선진국에서 생산한 디지털정보를 받아 활용하는 구조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23) 한상완, “미래형 대학도서관 모형개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학술발표논문집, 제2집 (1995. 10), p. 4.

이러한 현상은 음식문화에도 볼 수 있다. 1960년대에 미국이 코카콜라, 햄버거, 피자 등을 제3세계에 수출하여 전세계인의 입맛을 미국식 대중음식문화로 바꾸어 놓음은 물론 제3세계 젊은이들을 친미주의자로 변화시킨 예가 있다. 또 하나의 예는 오늘날 청소년에게 널리 읽히고 있는 일본만화의 주인공 이름과 매스컴을 통하여 알게 된 미국의 농구선수들의 이름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잘 외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위인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표시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경 없는 문화 침략에 지배당하고 있는 예이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을 비롯하여 국내의 많은 도서관들이 디지털도서관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다. 서구에서는 오랜 산업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수백만 권의 장서를 확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도서관을 추진 중에 있다. 이들은 산업화의 단계를 거쳐 정보화의 단계에 돌입하는 순차적인 과정이 있는 후 사회적 필요에 의해 디지털도서관을 논의하고 추진 중에 있다. 우리는 이러한 순차적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우리의 경우는 산업화 과정중 일제 식민지하에서 오랜 기간동안 민족정부가 단절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이후 산업화와 정보화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착 디지털정보 형성을 위한 바탕이 서구에 비하여 부실하다. 즉, 기본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기초가 부실해 일어난 대형사건·사고를 기억하고 있다.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사건과 같은 대형사건·사고들은 기초가 부실해 일어난 사건·사고에 해당된다. 정보화도 마찬가지다. 기초가 부실한 바탕 위에 초고속정보도로가 깔리면 민족정보자본은 무너지고 우리의 정보주권은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정보주권 확립을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할까. 우병현은 종자 정보자본²⁴⁾을 말하고 있다. 그는 정보화사회에서 디지털화는 과거 축적된 인쇄매체를 바탕으로 하므로 우리나라 현단계에서는 디지털 이전 단계인 인쇄매

24) 그가 말하는 종자정보자본이란 디지털화 하기 이전 단계에 있는 인쇄매체를 말한다.

체 축적에 우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종자 정보자본을 보존하는 역할은 어디에서 담당하여야 할까. 이는 공공도서관의 몫이다.

한국이 정보화에서 1등 국가가 되는 데는 100개의 첨단 멀티미디어실보다 풍피 두 정보도서관과 같이 제대로 된 공공도서관 1개가 더 절실한지도 모른다. 공공도서관의 정보화 기지와 전략은 종자 정보자본의 확충과 정보행위의 합리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 우리도 하루빨리 공공도서관을 공공 정보 수집-가공-제공 중심기지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 또 정보기지를 운영할 숙련된 전문사서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 그 다음에 각 지역단위마다 설치된 도서관의 내용을 채우고 또 전문사서를 집중배치해, 정보수집과 축적 그리고 제공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 정보의 디지털화-네트워크화는 그러한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도서관의 본질은 아니다.²⁵⁾

이러한 주장을 하는 우병현은 모신문사에서 주관하고 있는 ‘어린이에게 인터넷을’이라는 운동을 하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다. 기자의 입장에서 그는 정보선진국에 정보종속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정보자료의 디지털화 이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개개 공공도서관에 종자정보자본(인쇄자료)을 확충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종자 정보자본을 마련함에 있어 최우선 과제는 종이를 중심으로 한 올드미디어에 담긴 정보자본을 체계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하며, 종자 정보자본 축적은 도로, 공항, 항만건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과 동일하므로, 국가에서 이 일에 투자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²⁶⁾

한편, 김정근과 이용재는 원시자료(primary record, raw materials) 확보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 이들은 서구 선진국 도서관현장에서 사서들이 공들여 수집하는 원시자료로 그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작가나 학자의 육필원고, 지방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노인들의 육성을 담은 테

25) 우병현, 디지털은 자본이다: 디지털자본시대의 정보민족주의, (서울: 나남출판, 1996), pp. 257-259.

26) 앞의 책, pp. 276-277.

이프, 그 지방사람들의 다양한 삶과 일을 살펴볼 수 있는 사진이나 그림과 같은 그래픽자료 등의 확보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²⁷⁾

이러한 자료들은 정보선진국에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는다. 이는 삶의 공동체를 뛰어 나가는 지역 공공도서관의 몫이다.

미래도서관의 모형으로 건물과 장서의 개념이 사라진 디지털도서관의 이야기에는 불합리한 점이 많다. 우리의 현단계에서 디지털화보다 우선하여야 할 것이 무엇일까. 위의 종자정보자본과 원시자료의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정보를 민족적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 민족이 정보선진국에 정보종속을 당하지 않고 정보 주권을 확보하는 길은 우리의 토착 정보자본을 확보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 관한 것을 연구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서구의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만든 D/B를 이용한다면 이는 아메리카 문화에 철저히 종속 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언어는 그 사회의 이념과 관습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주권을 확보하는 길은 개개 도서관 단위로 종자정보자본과 원시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가공·분석하고, 필요한 것을 디지털화하여 정보선진국과 상호간에 제공·이용할 수 있을 때 정보선진국에 종속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V. 글을 마치면서

몇 주전 주일예배 때 설교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 기차시간이 급한 노교수님이 허겁지겁 택시를 집어타고는 '기사 양반, 빨리 갑시다.'라고 말하고 한참을 달린 후 노교수는 '기사 양반, 아직 멀었어요.'라고 독촉을 했다고 한다. 급한 손님을 정성껏 모시고자 하는 택시기사는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

27) 김정근, 이용재, "도서관과 사이버스페이스", 국회도서관보, 제34권 제2호(1997, 3.4), p. 66.

다가 '손님 어디 가시는데요' 라고 물었다고 한다. 그때서야 노교수는 목적지를 잊고 빨리 가자고 말만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가.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계에서 목적의식을 잃고 발표하는 글들의 모습과 흡사하다. 급변하는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최신 서구이론을 도입하여 남먼저 써먹는 학계의 모습과도 흡사하다. 우리나라 도서관 현장은 원시 그대로인데도 말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관공인 공공도서관에서의 정보제공기능에 대한 논의도 위의 예와 흡사한 부분이 많다.

서구에서 사회적 필요에 의해 사회적 장치로 출발한 공공도서관은 그 목적이 우리의 터와 때에 맞도록 재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라는 터와 산업화와 정보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때에 맞는 공공도서관은 목적으로 재해석해 내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통치로 인해 그 동안 진행되어온 민족적 산업화 과정이 중단되는 역사의 단절기간이 있었다. 그 이후 미 군정과 6. 25 사변, 경제개발정책, 군부독재 등으로 인하여 공공도서관은 기반형성을 위한 과정이 없었다. 기반이 형성되지 못한 채 정보선진국에 그대로 노출되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보선진국에 정보종속당할 것이 분명하다.

그 동안 정보화를 논의하면서 기능적인 분야에만 치중한 나머지 이에 바탕이 될 '철학'에 대하여는 등한시하였다, 이에 대한 단적인 예가 1996년 9월 국무총리실 산하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해 발표한 '1996-2000년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기본계획에는 '고도정보사회 진입을 통해 정보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되어 있다. 또한 고도정보사회가 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사회활동의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킴으로써 정보 및 기업의 생산성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전망하고 있다.²⁸⁾ 이 계획을 살펴보면 정보화사회가 도래하면 정보와 지식 활용을 통하여 기업의 생산성 증대와 삶의 질

28) 한국전산원, 1996-2000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해설서, (서울: 동원, 1996)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보편적인 문제는 제시하고 있지만 민족적 차원에서 정보화사회에 답을 정보와 지식의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다. 정보화사회에 정보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정보제공기능은 지역주민의 삶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재해석하였고, 이를 위하여 종자정보자본과 원시자료확충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을 디지털화 하여 정보선진국과 주고받을 때 정보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계에서 발표되는 정보화와 관련된 글들에는 우리나라 도서관의 현단계는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정보선진국에서 수백년동안 쌓아온 실물장서를 바탕으로 디지털화 하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주장을 쏟아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예를 들여다보자.

첫째, 도서관에서 책이 사라지고 있다. 둘째, 이용자가 굳이 도서관에 갈 필요가 없어지고 있다. 셋째, 지구촌 어느 곳에 있는 도서관이든 이용할 수 있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즉 단적으로 말해 현재 종래의 도서관이 변신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에 도달하고 그 새로운 도서관이 전자도서관이다.

(논문 A, p. 115)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현단계는 디지털화를 서두르기보다는 정보선진국에 정보중속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종자정보자본과 원시자료를 확보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공공도서관을 통한 정보주권 확립을 위한 전략적 방안에 관한 연구는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현단계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참 고 문 헌〉

- 강대훈. 한국도서관운동론. 광주 : 도서출판 광주, 1990.
- 김남석. "일제하의 농촌문고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논집(한국도서관. 정보학회), 제24집(1996. 여름호), pp. 335-364.
- 김남석. "일제하 청년단체의 도서관설치운동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논집(한국도서관. 정보학회), 제18집(1991), pp. 11-60.
- 김남석. 일제하 공공도서관의 사회교육활동. 대구 : 계명대학교출판부, 1991.
- 김세익. "사회속의 도서관". 도서관 제29권 7호(1974.7.8)
- 김세익. 도서관과 사회.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71.
- 김정근. "그래도 변함없는 책과 도서관의 몫". 월간 서울. 1996. 10. pp. 28-30.
- 김정근. "한국문헌정보학의 위상정립과 교수협회의 역할 : 우리 학문의 실형성 문제와 관련하여". 1996년도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정기총회 및 하계세미나 발표논문요지. 1996. 6. 21-22(유성호텔), pp. 5-18.
- 김정현 "전자도서관의 발달과 전망". 도서관학논집(한국도서관. 정보학회), 제22집(1995. 6), pp. 351-372.
- 김지화. "정보사회의 도래와 전자공동체" 정보시대의 공동체 : 제9회 학술발표회(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6. 11. 28(교원공제회관). pp. 1-17.
- 김태승. "학문의 신실증주의적 신드롬을 경계함". 도서관문화, 제34권 제5호(1993, 9. 10), p. 2.
- 김포옥. "광복이후 한국공공도서관사 연구 : 일제하 공공도서관제도의 영향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0.
- 문화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문화향수 실태조사. 서울 : 동부, 1991.
- 문화체육부. '96년도 전국공공도서관 현황. 서울 : 동부, 1996.
- 박상근. 세계도서관학사상사. 서울 : 민족문화사, 1993.
- 박인용.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사서와 이용자의 의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87.
- 박인용. "한국의 문화발전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도서관학논집(한국도서관. 정보학회), 제21집(1994), pp. 291-324.
- 세라, 제스 H., 김정근 역.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중개자로서의 도서관." 도협월보, 제10권 7호(1969, 9), pp. 14-15.

- 세라, 제이 H., 윤영 역. 도서관학의 사회학적 기반. 서울 : 구미무역, 1984.
- 손연옥. “정보시대에 있어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고찰.” 도서관연구 (한국도서관 협회), 제22 권 2호(1981, 3. 4), pp. 23-36.
- 신용운. “일제하 사상통제 기관으로서의 공공도서관.” 석사학위논문(경북대학교 대학원), 1988.
- 양재한. “미래도서관에서의 소장(ownership)과 접근(access)의 문제.” 도서관학 논집 (한국도서관. 정보학회), 제25집(1996. 겨울호), pp. 19-50.
- 양재한. “한국 미래도서관의 모형.” 도서관, 제52권 1호(1997. 봄호), pp. 45-72.
- 양재한. “창원지역 공공 및 마을도서관 이용자 확보 방안.” 도서관학논집 (한국 도서관. 정보 학회), 제23집(1995. 겨울호), pp. 211-251.
- 오한석. “한국근대도서관 설립운동의 사적고찰.” 석사학위논문(한양대학교 교육 대학원), 1987.
- 우병현. 디지털은 자본이다 : 디지털자본시대의 정보민족주의. 서울 : 나남출판, 1996.
- 유형승. “정보화사회의 발전과정과 공공도서관의 상관관계에 관한 사례적 연구.” 전주대학교 논문집, 제17집(1988), pp. 45-64.
- 이용남. “공공도서관 목적의 구조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한국문헌정보학회), 제22집 (1992. 6), pp. 29-82.
- 이용남. “미국 공공도서관 목적변천 추세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한성대학교), 제2집(1984), pp. 139-161.
- 이진영. “공공도서관 기준 및 목적에 관한 연구.” 도서관, 제51권 2호(1996. 여름호), pp. 3-24.
- 이춘희. “근대 한국 도서관사 연구 : 개화기에 있어서 근대 도서관 사상의 형성과 정을 중심으로.” 도서관학(한국도서관학회), 제16집(1989. 6), pp. 71-110.
- 이화섭. “미국 근대 공공도서관사상에 관한 연구 : 벤자민 프랭클린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1986.
- 임재해. “21세기 우리 국학의 방향과 과제 : 국학,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21세기 우리 국학의 방향과 과제 : 새 국학의 설계와 국학중흥운동을 위한 제1회 한국학 국제학 술대회. 1996. 11. 1-2(안동대학교 문화회관), pp. 13-43.
- 정영애. “정보사회와 교육 : 그 패러다임 변화와 딜레마, 그리고 교육적 선택.” 정보시대의 공동체 : 제9회 학술발표회(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6.

11. 28(교원공제회관), pp. 3-1-3-22.
- 정준민. "정보사회와 공공도서관." '96공공도서관 경남지역세미나. 1996. 10. 21 pp. 5-11.
- 조동일. "국학 이론의 발전과 세계학문." 21세기 우리 국학의 방향과 과제 : 새 국학의 실제와 국학중흥운동을 위한 제1회 한국학 국제학술대회. 1996. 11. 1-2(안동대학교 문화 회관), pp. 67-83.
- 최석두. "디지털도서관의 영향." 21세기에 있어서의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과 책임 : 국립 중앙도서관 개관50주년 기념논문집. 1995. pp. 79-100.
- 최석두. "전자도서관(Digital library)의 개념과 그 발전추세." 정보환경의 변화와 도서관 문화 : 제34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논문집. 1996. pp. 91-120.
- 최성진. "도서관법'중 '공공도서관의 목적'에 대한 비판적고찰". 한국비블리아, 제2집 (1974), pp. 132-177.
- 최성진. "한국문헌정보학에 대하여." 창사이춘회교수정년기념논문집, 1993. pp. 81-111.
- 코폭, 패트릭. "에코와의 인터뷰 : 컴퓨터, 인터넷, 하이퍼텍스트에 대하여." REVIEW(1996. 여름), pp. 242-278.
- 한국도서관협회. 공공도서관 표준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 동 협회, 1991.
- 한국도서관협회.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및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 문화부, 1990.
- 한상완 외. 국가디지털도서관 구축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0권 제3 호(1996. 9), pp. 37-66.
- Baker, Philip G., 안현수 역. "전자책과 미래의 도서관." 도서관. 제48권 제3호 (1993, 5. 6), pp. 14-37.
- Crawford, Walt and Gorman, Michael. *Future libraries*. Chicago : ALA, 1995.
- Gorman, Michael. "Dreams, Madness, & Reality" 동아대학교 개교50주년 해외석학 초청 특별강연 및 학술강연회. 1996. 11. 25(동아대학교 교수회관 동시통역실), pp. 1-17.
- Gorman, Michael. "Libraries and librarianship in the 21th century," 동아대학교 개교50주년 해외석학 초청 특별강연 및 학술강연회. 1996. 11. 25(동아대학교 교수회관 동시 통역실), pp. 18-30.
- Lee, Too-Young. *In to the digital age : a complement or displacement.* 한국

문헌정보 학회지, 제30권 제4호(1996. 12), pp. 3-12.

Mosco, Vincent & Wasko, Janet., 민글 편집부 역. 정보에 지배당한 사회 : 정보의 정치경제학. 서울 : 민글 편집부, 1994.

Shera, Jesse H. *Introduction to library science*. Littleton, Colorado : Libraries unlimited, 1976.

Stoll, Clifford., 한경훈 역. 허풍떠는 인터넷. 서울 : 세종서적, 1996.

Usherwood, Bob., 오동근 역. 정보사회와 공공도서관.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96.

A Critical Study on the Information—Offer— Function of Public Library in Korea

Park, In—Ung* Yang, Jae—Han**

〈Abstract〉

This is a critical study on the information—offer—function of Korean public library among its several functions. This is not only reviewed about ideological logical background of formulation of public library in Korea, but also reviewed about changing process of the goal of public library till the development of actual concept of modern public library.

This study suggested a proper definition about actual goal of public library in Korea at present.

Technolusts say the public library in the future should be both bookless and paperless library. That may mean over—interpretation on information—offer—function of public library among its several funtions.

When we meet information super highway era, we must not confront information dependence to advanced information countries.

* Professor, Department of Library, Archive and Information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Library and Information Department, Chang—Won Junior College

Thus, I suggest a way to solve the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sovereignty through public library in order to avoid the information dependence to advanced information countries.